

철강판·K-푸드 호조... 전남 수출 흑자 전환 '올해도 맑음'

지난해 41억달러 흑자... 철강판 수출 85.6억달러로 '역대 최대' 글로벌 수요 회복에 전망 밝아... 지정학적 문제·유가 흐름 '변수'

지난해 대내외적 무역 악재 속에서 전남이 무역 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으로 대표되는 'K-푸드'와 철강판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선전 속에 무역 흑자를 이끌었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은 수출에서 무역수지 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기록한 -3.2억달러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남의 수출은 전년도보다 8.1% 감소한 454.1억달러, 수입은 전년도보다 17% 감소한 413.1억달러였다.

수출의 경우 유가(油價) 민감도가 높은 석유제

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고전한 것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수출액은 줄었지만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품목별로는 철강판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산업별 수출액은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공산품이 전년도보다 1.4% 줄어든 288.5억 달러를 기록했고, 광산물도 전년도보다 18.9억달러 감소한 159.3억 달러에 그쳤지만 농림수산물이 전년도보다 13% 신장한 6.3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과 북미, 동남·북아 등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에 김과 쌀의 수출은 1.5배 증가했다.

전남 김은 역대 최고인 9670만 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하며, 국내 김 수출의 32.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수출은 2420만 달러로 전년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남 특산품인 배도 2000만불을 넘어선다. 수출 10대 품목 중 철강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철강판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34.7% 증가한 85.6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남 수출 10대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석유제품은 부진했다.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액은 154.9억달러로 전년도보다 19.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과 수출 단계 약세로 합성수지(-14%), 기초유분(-19.1%), 합성고무(16.7%)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남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7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95.7억달러)보다 22.6% 줄어든 수치로, 중국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자체 생산 능력이 오르면서 대중(對中)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비롯한 5대 수출국 중 일본만이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은 철강판의 증가로 전년대비 18.5% 증가한 3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413.1억달러로 전년도보다 17억달러 줄었다.

수입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원유와 유연탄 철광 등 1차 산품 중심으로 감소를 이끌었다.

1차 산품은 지난해 327.7억달러로 전년도보다 18.4% 감소했고, 중간재도 12.4% 줄어든 77.6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올해 전남의 수출입이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비교적 긍정

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있다.

우선 올해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3% 내외로 앞선 전망보다 상향했다.

또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올해 세계교역도 3.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미(美)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온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지정학적 문제와 유가 흐름, 자국 우선주의 확산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을 비롯해, 러·우 전쟁의 장기화 중공 긴장 고조 등 경제 불확실성은 변수다. 또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산업과 수출입에 미칠 영향도 미지수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방 산업 수요 회복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남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전남경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협약

사회적 약자 지원 1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전남경찰청을 찾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남지역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광주은행은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적약자 통합지원 시스템 '봄봄봄 지원단'에 적극 참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수색 지원을 위해 배회감지기 300대 구입·유지 비용으로 약 90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청에도 약 90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300대 지원 및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 협약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치매 환자들의 실종을 예방



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광주·전남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21일부터 신청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전인 사업자 공고일의 국제정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협, 상호금융대상평가 전국 최다 선정

상호농협 등 23개 조합 수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2023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상호농협 등 관내 23개 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36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문 최고 영예를 자랑한다.

전남농협은 최종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본부 중 최다 사무소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호농협은 전국 최초로 3연속 대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서영암농

협, 남평농협, 전남농농협, 월출산농협, 북평농협, 이양정농협 등 6개 사무소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순천광양축협 ▲영암축협 ▲금정농협 ▲녹동농협 ▲구례축협 ▲고서농협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영암남주농협 ▲군서농협 ▲선진농협 ▲동북농협 ▲임해농협 ▲신북농협 ▲진도농협 ▲화순농협 ▲화순축협 등 16개 사무소가 선정됐다.

박종택 본부장은 "지난 한 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낸 농·축협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농업인, 조합원,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알리바바 전남도 브랜드관 입점 기업 28일까지 모집

도, 30곳 100여 제품 발굴 예정

전남도(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도내 특화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B2B 사이트)인 알리바바 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으로 전남지역 수출 유망기업 30개사 100여개 제품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시작해 지난 3년간 중소기업 29개사 124개 제품을 성공적으로 알리바바 플랫폼에 입점시켜 수출상담회와 품평회를 통해 총 532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중화권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바바 전남도 브랜드관에 입점하면 상품 관리와 마케팅 지원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수출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뚜라미 "보일러 교체없이 10초안에 온수" '외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 국내 첫 출시

(주)귀뚜라미는 보일러 교체 없이 온수를 제공하는 '외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 (사진)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기존 옵션으로 가능했던 내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을 외장형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유량 감지 기능이 있는 보일러 제품이면 용량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은 보일러 하부 직수 배관에 분체를 설치하고, 수전 하부에 온수 순환을 위한 컴포트 밸브를 연결하는 구조로 시공이 간단하다.

보일러에서 온수가 공급되는 배관을 미리 데워 사용 전 1~2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온수를 제공한다. 미설치 제품 대비 온수공급이 최대 90%

빨라, 10초 이내로 온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물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터보 모드를 적용해 온수량도 증가시켰다. 10분 동안 최대 10ℓ 더 많은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수전에서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온수를 제공한다.

귀뚜라미 외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도 시간대별로 온도를 유지하는 '예약 기능'과 겨울철 수온이 4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15도로 자동 상승시키는 '동결 방지 기능'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집안 면적이 넓고 여러 개의 화장실을 보유한 대형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에서 간편한 시공만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온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단체 소속 기업인 3600명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14일 경기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할

예정이다.

호남권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건설단체연합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해 예정으로 중소기업 대표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재해예방 준비가 부족한 현상을 감안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는 꼭 필요하다"며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본량농협 주말농장 선착순 임대 분양

광산구 자산동 일원 이달말까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본량농협이 소유한 광산구 자산동 일원 주말농장을 2월 말까지 선착순 임대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본량농협 주말농장은 지난 2021년 도농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시작해, 도시 가족의 여가활동과 농사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차장과 화장실, 농기구창고, 세척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데다 텃밭 앞까지 용수공급을 위한 관수시설을 완벽해 농사체험을 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분양 평형은 7평(42구획), 10평(48구획) 단위로 총 면적 1493평(90구획)을 분양한다.

정상윤 본량농협 조합장은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과 함께 직접 재배한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한 여유를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량농협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량농협(062-943-97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0.42(-29.22)
↑ 코스닥	853.30(+8.15)
↑ 금리(국고채 3년)	3.450(+0.097)
↑ 환율(USD)	1335.40(+7.30)